
2 0 2 5 학 년 도

6월 모의평가 운문문학 해설지

우부가 set / 청산행 set

주제를 중심으로 한 독해
허용 가능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지 판단



피렘의
국어공작소

생각의 전개 <운문문학 해결하기>

2025.06 [22~26] 고전시가+수필 '우부가 / 타농설' ☆☆☆

<보기> 확인

— <보 기> —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겠지요? (가)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 즉 <보기>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태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한편 (나)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권하고 격려하다.' 정도의 뜻을 가진 '권면'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앞쪽의 '긍정적으로 평가'와 비슷한 의미일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보기> 역시 '독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를 알고 있을 정도로 어휘력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요. 어쨌든 두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독해하고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할 준비를 해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저 건너 공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비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체님께 아는 체로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에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을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훌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뜯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걸태 하다 혼금(鬪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흥정 구문 먹기 편잔 들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불가 감언이설 피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풍돈 떼기
 남북춘에 푸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불가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짜리 되었구나
 대종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불가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 가대(家臺):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 밑줄을 쳐 보았습니다. 모두 '공생원'이라는 사람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에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받는, 즉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모두 '공생원'이 하려고 하는 것이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와 엮어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주제 중심으로 가볍게 독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독해는 선지 판단 과정에서 하면 되니까요.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최근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는 수필입니다. 어려운 것을 각오하고 꼼꼼하게 정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큰 가뭄이 들어 제대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한 '현실적 한계'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가 안 오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싹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편안히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려 보자 결심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했네요. 이 농부의 모습은 끝났이가 권면하고자 하는,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여차피 망했으니 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게으른 농부'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자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구요.

나는 일찍이 가을걷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뻥뻥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뻥뻥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탈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가을걷이할 무렵이 되자, 글쓴이는 그 밭의 절반이 황폐하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 노인’은 그 사정을 설명하는데,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농부들은 게으른 태도로 김을 매지 않아 ‘황폐하고 성긴 곡식’만을 얻게 되었고,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농부들은 부지런하게 일하여 ‘뻥뻥한 곡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니 비가 온 모양이네요. 이에 게으른 태도를 보인 농부들은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만 우러러보고, 부지런한 태도를 보인 농부들은 술에 취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노인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밑줄 친 부분)가 곧 이 지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글쓴이 역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네요. ‘시서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선비들 역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권면하는 모습이 제시될 것이예요. 이렇게 주제를 계속 인식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글쓴이가 보기에,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세 번 정도 떨어지면 아예 자신이 공명을 이룰 분수가 아니라며 ‘운명론적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선비들 역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

글쓴이가 보기에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의 고생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아가 학문을 하여 얻는 이로움이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농공상’ 사상이 지배하던 고전문학의 세계관을 고려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주장이죠? 아무튼 글쓴이는 농사처럼 이로움이 작은 일도 부지런해야 하듯이, 공부처럼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로 도배되어 있는 지문이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2%	8%	9%	6%	5%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는 열거의 방식,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는 공생원이 욕심 부리는 거 열거했고, (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대조했지.
해설	(가)는 전체적으로 ‘공생원’이라는 인물이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는 ‘부지런한 농부↔게으른 농부’, ‘농사↔공부’와 같은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라는 주제를 부각했죠?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태도의 변화가 왜 드러나.
해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각각 '공생원', '게으른 농부' 혹은 '선비들'과 같은 인물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물론 (가)는 (나)와 달리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와 같은 대구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요.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어가 어딴냐.
해설	(가)와 (나) 모두 딱히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자나 글쓴이가 자신의 내면세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죠?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 부분은 없네.
해설	(가)에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저 '공생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이유도 없겠죠? 한편 (나)의 경우, '봄', '여름', '가을걷이' 등 계절적 배경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농사를 짓는 농촌의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딱히 해학적 표현을 활용할 만한 지문들은 아니지.
해설	'해학적 표현'은 슬픔이나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표현을 의미합니다. 즉,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내면세계가 전제되어야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와 (나) 모두 특정 인물을 비판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학적 표현'

이 활용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나아가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 역시 헛소리구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78%	9%	6%	3%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주제넘게 아는 체로 ㉠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장, 이사!
해설	'공생원'은 ㉠에 현혹되어 '이장'(무덤을 옮기는 것)도 자주 하고 '이사'도 힘을 씁니다. 이는 ㉠에 따라 집터나 밭자리를 옮겨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② ㉡은 재물을 모은 공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 처자식을 흠어 놓고
(중략)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냥 흠어 놓았다는데 무슨.
해설	'공생원'은 '올 적 갈 적 행로상'에 ㉡을 흠어 놓습니다. 애초에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공생원'이 처자식을 열심히 챙길 리가 없죠? 나아가 지문 후반부에서는 아낙(처)은 친정살이를 하고 있고, 자식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를 근거로 하면 '공생원'이 가족을 전혀 챙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공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재상가에 ㉢ 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재상가에 뭘 하려고 했네.
해설	‘청질’(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힘을 빌리는 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공생원’이 ‘재상가’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인물의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맥락을 이해하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④ ㉔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가대* 흥정 구분 먹기 ㉔ 핀잔 듣고 자빠지고
*가대(家垓):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대 흥정하러다 핀잔 들었네.
해설	‘공생원’은 ‘가대 흥정 구분 먹기’를 하러다가 핀잔을 듣고 자빠집니다. ‘구문’(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의 뜻을 알고 있기는 힘들겠지만, 맥락상 ‘가대 흥정’을 통해 얻는 보상 정도라는 생각은 해야겠죠? 아무튼 이를 노리다가 ‘핀잔’만 듣고 자빠진 ‘공생원’입니다. 이렇게 독해한 결과를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⑤ ㉔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다.

부자나 후려 볼까 ㉔ 감언이설 피어 보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 적어봤네.
해설	‘공생원’은 부자를 후리려는 생각으로 ‘감언이설’을 피어 보려고 합니다. 이는 ‘감언이설’을 통해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 심화

이장, 행로상, 청질, 구문과 같은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잘 쓰지도 않은 어휘에 대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주제를 바탕으로 맥락을 ‘독해’할 수 있는지이니까요. 나아가, 시험장에서는 선지만 쪽 보고도 2번이 답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공생원’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나머지 선지와 달리, 2번 선지는 ‘공생

원’을 가족애를 가진 따뜻한 인물처럼 묘사한 선지니까요. 이런 ‘감’ 역시 문학 고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6%	8%	9%	63%

24. ㉔~㉖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㉔ 공생원 / ㉕ 게으른 농부 / ㉖ 선비들

- ㉔~㉖ 모두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들입니다. ㉔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고, ㉕와 ㉖는 ‘운명론적 태도에 얽매어 삶의 주제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진 인물들이었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① ㉔는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㉕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술에 취한 건 부지런한 농부들이었지.
해설	㉔는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실전적 지문 독해’를 한 정도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떠올리기 쉽지 않으니, 뒷부분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㉕는 ‘게으른 농부’로, 가을걷이할 때가 되자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니다.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 잠든 것은 ‘부지런한 농부’들이었죠?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② ㉔는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㉕는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는 금수저였던 것 같은데?
해설	㉔는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진 인물입니다. 금수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할 리가 없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구요. 한편, ㉕는 ‘공명’에 분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공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를 근거로 해도 허용하기 어려운 선지네요.

③ ④는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⑤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 시험 떨어졌다고 수치를 당한 적은 없지.
해설	③는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습니다. 이는 혼인을 중매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창피를 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⑤는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할 뿐,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④ ⑤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⑥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⑥는 오히려 지가 놀렸지.
해설	⑥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으면서, 어차피 망할 판에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허용하기 어렵겠죠? 한편 ⑤는 과거에 낙방한 뒤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배운 것을 버려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은 ④가 가진 태도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⑤ ⑥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⑦는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그 자체네.
해설	⑥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⑦는 공명과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고, 자신은 그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명론적 태도에 얽매어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 자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의 글쓴이가 경계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즉 이 지문의 주제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죠? 나머지 선지의 디테일한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5번 선지를 답으로 고를 수는 있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3%	15%	9%	9%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나)에서는 '부지런한 농부', '게으른 농부'의 말을 인용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박이 어딤어.
해설	이 지문은 철저하게 글쓴이의 주장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필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제로 하기에, 그에 대한 반박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인의 대사를 말하는 거네.
해설	글쓴이의 물음에 답하는 '마을 노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진 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네요.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애초에 이 지문의 주제가 다른 이에게 특정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할 때 내놓고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농사→학문!
해설	글쓴이가 '농사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학문'하는 선비들의 모습이라는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17%	14%	61%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뜯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생원이 바라고 경영하는 것들이네.
해설	'공것'과 '뜯재물'은 모두 '공생원'이 바라고 경영하는 것들입니다. '공생원'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기에, '공생원'이 바라고 경영하는 '공것'과 '뜯재물'은 이러한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실적 한계!
해설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은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 즉 '현실적 한계'에 당면하게 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제였구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올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김을 맬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맬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올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네.
해설	'공납'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이를 범용(남이 맡긴 물건이나 보관하여야 할 물건을 마음대로 써 버림. ≒유용)하려 하는 '공생원'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금 납부'라는 당배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어휘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공납', '범용', '유용' 정도의 어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올 것'은 어차피 비가 오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으른 농부'의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썩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돈천이나 가진 '공생원'은 '친구 대접'을 술 한 잔 밥 한 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은 <보기>에 의하면 '공생원'이 가진 '세속적 욕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노력하는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공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큰 일은 학문에 대한 것인데?
해설	(가)에서 ‘일가에게 인심을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공생원’의 말로를 보여 주는 것은, ‘공생원’처럼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에서 말하는 ‘큰 일’은 농사라는 ‘작은 일’과 대비되는, 학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글쓰기가 학문을 하는 ‘선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추구하는 모습을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과 연결지은 5번 선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겹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 줄 겁니다!

③ 수필 독해 : 운문학과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하고자 하는 말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필이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해,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주제도 명확하고 선지도 깔끔해서, 고전시와 수필을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제시되어,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은 꽤나 고생했을 지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두드러지는 경향이기도 하니, ‘피램의 국어공작소’ 카페에서 제공하는 단어장 및 평소애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는 습관을 바탕으로 ‘어휘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수능날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생각 워크북 <현대시 창작 원리>

2025.06 [31~34] 현대시 '청산행 /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

<보기> 확인

— <보 기> —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지문은 '자연'과 '절대자'와 같은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먼저 (가)의 경우,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나)의 경우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구요.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에 대해 (가)는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나)는 회의하고 멀어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확히 체크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풀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 즉 '세속의 일상'에 대한 미련 없이 떠나와 '청산'에 도착한 화자는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는 표현을 하며 '청산'이라는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다 둔 편지 구절', '버린 칫솔'처럼 '세속의 일상'에서 경험하던 것들이 이따금 생각나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두 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에 완전하게 동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보기>에서 설명한 주제 그 자체죠?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보기>가 없었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작품입니다. 화자는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시면서 성찰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의 시킴'이 아니라는 표현은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의미할 것인데, 이렇게 화자는 결국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나'와 '모든 것'을 인식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보고, 일단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9%	13%	11%	57%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때까치들이 순결해지고, 맨살 비비는 돌들이랑 함께 눕는다고 했다.
해설	(가)에는 '물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지는 때까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눕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까치', '돌들'과 같은 인격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청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화자의 심리 내포' 자체가

	틀리기 어려운 내용이니, '인격화된 대상'만 찾아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ㄹ 뿐이 많이 반복되네.
해설	(나)에서는 '~ㄹ 뿐'이라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자'와 같은 존재가 아닌 자신의 경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청산으로 왔으니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지.
해설	(가)의 화자는 '세속의 일상'을 보내던 어딘가에서 '청산'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가', '여울물', '때까치들', '나무들', '들거미줄', '돌들'과 같은 여러 사물을 포착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점차 '청산'에 동화되어 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나)의 경우, 그저 차를 마시는 화자의 상황만이 제시되었을 뿐 '공간의 이동'을 허용할 근거는 찾기가 어렵죠?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라는 표현이 거듭 명시되어 있지.
해설	(나)의 경우, '나'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화자를 거듭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의 경우에는 화자를 직접 명시한 적이 없네요.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 친밀감이 왜 나와.
해설	(가)의 경우, '들거미줄', '돌들'과 같은 자연물에 함께 하고 싶다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

	게 자연과 동화되는 것이 (가)의 주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한편, (나)에서도 '참새', '들국화', '물'과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피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죠? 애초에 (나)의 주제를 고려할 때, '대상'에 대한 '친밀감'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7%	10%	70%	6%

3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 관습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 관습이다.

- ㉠의 경우, '청산'에 온 화자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고, 서른 번 다져 다가도 서른 번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의 주제를 고려하면, 이는 '세속의 일상'과 '자연에의 동화'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계속 왔다갔다 하던 것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관습'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한편 ㉡의 경우, 화자가 '달갑고 가장 즐거워' '차를 마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역시 (나)의 주제를 고려하면, 이는 '절대자'의 의지가 아닌 화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차를 마시는 행위'를 즐거움을 깨닫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며 ㉠과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언어의 감각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져 두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인데?
해설	㉠은 '서른 번'씩이나 다졌다가 포기하다가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즉, 화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죠. 동시에 화자는 ㉠과 단절하고 '청산'이라는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곧 주제 그 자체였죠? 단절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리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을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들이 가득하기에,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② ⑥는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는 이거 좋아하는데?
해설	⑥가 '호을로' 하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렇게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을 즐기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혼자서 즐겁게 취미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사회적 고립'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요?

③ ④는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⑥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피안에 대한 지향이 왜 나와.
해설	'피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피안'은 '현실 밖의 세계, '관념적 세계'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참고로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는 '차안'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아무튼, ④를 떠올린 화자는 '서쪽 마을'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④가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서쪽 마을'은 '청산'에 있는 현실적 공간일 뿐, '피안'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화자가 '피안에 대한 지향'을 한다는 것도 주제를 고려하면 너무 뜬금없구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서쪽'은 '저승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만든 선지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허용하기는 어렵겠지요. 한편, ⑥가 일과를 마친 '고즈넉한 저녁'에 차를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겁게 여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⑥가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는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④ ④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⑥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른 번 고민했으니 갈등이고, 고즈넉하고 담담하면 평정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해설	④는 '서른 번'이나 다져 두었다가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는 미리 생각한 것처럼 '세속의 일상'과 '자연의 동화'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의 모습을 나타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를 왜 연민해.
해설	화자가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볼 때, '쓰다 둔 편지 구결과 버린 칫솔', 즉 '세속적 일상'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인가의 사물들을 '내려다 보'는 과정에서 ④와 같은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갈등'하는 모습이지 '자기 연민'의 모습은 아니지요? 화자는 스스로를 안쓰러워 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⑥의 경우, 화자가 달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행동일 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로'한다는 것은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⑤ ④는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⑥는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를 왜 연민해.
해설	화자가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볼 때, '쓰다 둔 편지 구결과 버린 칫솔', 즉 '세속적 일상'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인가의 사물들을 '내려다 보'는 과정에서 ④와 같은 갈등이 촉발되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갈등'하는 모습이지 '자기 연민'의 모습은 아니지요? 화자는 스스로를 안쓰러워 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⑥의 경우, 화자가 달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행동일 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로'한다는 것은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생각 심화

이 문제는 '고립', '피안', '고즈넉하다', '평정함', '위안'과 같은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안'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모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대충 알고 있다면 오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립'을 대충 '혼자 있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홀로 있으니까 고립 맞지'와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5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안'을 대충 '기분 좋게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자기 위안 맞지'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예요. 이처럼 최근 평가원은 '어휘력'이 정말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문을 통해 단어들의 정확한 뜻에 익숙해지는 식으로 '어휘력'을 키워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7%	72%	8%	10%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 호리던 산길에 잘 보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엔 흐렸다는 거지.
해설	호리'던'이라는 어미에 주목하면, 원래는 잘 파악되지 않던 '산길'이 이제 잘 보인다는 식으로 독해할 수 있겠지요? 이를 근거로 하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가늘게 흠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
해설	㉡은 '저녁 연기'가 흠어지는 형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화자는 이를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과 연결짓고 있어요. 즉, '한 가정'이 가지고 있을 '고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것이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 중 하나네?
해설	화자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같은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자 합니다. 이처럼 ㉢의 형상을 가진 '돌들'은 아직 세상을 알아 보지 못한, 즉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대상 중 하나를 표현한 것이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운 일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지.
해설	이제'는'이라는 조사에 주목하면,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16%	31%	30%	9%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세속의 일상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지.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도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쓰다' 든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은 (가)의 화자가 '세속의 일상'에서 경험하던 것들입니다. 화자는 지금 '청산'에 와 있는데, '편지'와 '칫솔'은 과거의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속의 일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생각하는 것은 '청산'이라는 자연에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해 '세속의 일상'을 떠올리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나)의 화자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사실과 관습'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곧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자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과 관습'과 같은,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나'와 '모든 것'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과 관습'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깐요. 애초에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 그 자체이기도 하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건 주제랑 어긋나는데?
해설	(가)에서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청산'이라는 자연에 친숙

해지는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숙해지니 원래 잘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이게 된 것이라는 의미죠.

한편,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화자가 남은 인생에서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이라는 깨달음, 즉 '절대자'가 아닌 스스로가 경험한 것만이 존재 인식의 근거라는 깨달음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현실에 얽매어 경험한 사실만을 존재 인식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미이니까요.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를 디테일하게 적용하며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이렇게 <보기>의 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은 최근 평가원 현대시 <보기> 문제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FAQ

Q :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고 했지만, '절대자'의 존재 그 자체를 회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 : 일단 (나)의 화자가 '절대자'의 존재 그 자체를 회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선지에서는 명시적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고'라고 써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라고만 써 놓았어요. 이는 '절대자'와 관련된 여러 것들을 회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자와의 관계' 역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매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더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화자의 심리가 투사된 건 당연할 거고, (나) 부분은 주제 그 자체네.
해설	(가)의 '여울물'은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립니다. 이는 자연으로의 동화를 어색

해하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
 죠. 나아가 모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졌다는 '때
 까치들은' 여전히 '순결해'지지 못한 채 세속의 더
 러움을 품고 있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따
 라서 '때까치들'을 보는 화자의 내면세계에 공감해
 보면, 자신과는 달리 순결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서 부러움과 같은 심리를 보이겠죠. 이러한 심리가
 투사되어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자연물은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고려하여 독해했
 다면 이와 같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절
 대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
 습니다. 이는 '참새'와 같은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
 어 '절대자'와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로,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에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p>(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은 자연 속 의 대상들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들과 '함께' 잠 들고자 합니다. 이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드 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p> <p>한편, (나)의 화자는 '물에게 물은 물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물'이 곧 '물'로만 인식된다 는 의미겠죠? 화자는 이와 같이 자신도 자신이 경 험한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 내는 것이죠. 이렇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p> <p>실전에서는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애초에 <보기>에서 설명한 두 작품의 주제 그 자체가 제시 되어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 다.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 다는 기본 원리를 잊지 마세요.</p>

현대시 독해 연습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화자는 어딘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곳에 미련은 없나 봐요. 미련이 남았다면 손
 을 흔들면서 잘 있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화자가 떠난 곳은 '청산'입니다. 이곳에 며칠 동안 머문 화자
 는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이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눈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청산'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졌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화자는 '청산'에서 '상수리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내려다봅니다. 그
 런데 갑자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가'
 는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렇게 사람을 보니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이 생각난 것이죠. 이는 화자가 '청산'에 오기 전에 있던 공간(자연
 과 반대되는 속세의 공간)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 흔들고 떠나
 갈 미련은 없다고 하더니, 사람이 사는 곳을 보니 속세에 미련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는 화자입니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또한 화자는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
 물'을 보고 있어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되
 어 있거나 반대되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울물' 역시 화자의 내
 면세계와 관련되어 있기에 화자가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길을 놓치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여울
 물'은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화자 역시 '청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놓치'기도 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여울물'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한편 '때까치들은' 모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해진' 모습입니다. 아직 '여
 울물'처럼 '청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화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청산'
 에 완벽하게 적응한 '때까치들'의 모습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겠죠. 나
 가 화자의 입장에서 '때까치들은' 일종의 롤모델로 기능하면서 '청산'에
 제대로 적응해야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이는 '서른 번 다쳐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때문이라고 해요. 작품의 맥락상 화자는 속세를 떠나 '청산'이라는 자연에 도착한 상황인데,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뒤에 두고 온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속세를 떠나려고 서른 번이나 다짐했다가 또 서른 번이나 포기했던, 마치 '관습'과도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속세를 떠나 '청산'에 온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화자는 속세에 미련이 가득하기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까치들'을 보고서 적응해볼까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미련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서쪽 마을'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는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화자는 이를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녁 연기가 '고민'의 양식'으로 느껴지는 것은, 화자의 내면세계가 '고민'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인식할 테니까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화자는 속세에서 '고민' 가득한 삶을 살았기에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화자는 결국 '들거미줄', '돌들'과 함께 누워 잠들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이라는 표현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들'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는 '편지', '칫솔', '관습들' 등을 떠올리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다가도, '서쪽 마을'의 '저녁 연기'를 보고 어차피 속세는 '고민'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청산'에 적응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고민'을 해 본 적 없는 순수한 자연물들과 함께 말이예요.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올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고즈넉한 저녁'에 혼자서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화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만 사실일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는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러한 향기를 가지지 않은 '물'과 같이 '차를 마시는 것'은 '담담한 사실'일 뿐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화자는 짙은 향기가 있든 없든 지금 스스로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네요.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은 '누구'의 시킴을 받은 것도, '누구'의 손으로 직접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즉, '누구'로 표현된 존재의 의지가 개입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자는 '차를 마시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달갑고 즐거워 차를 마시고 있을 뿐, '누구'의 의지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자는 이를 '사실'이자 '관습'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1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차를 마시는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면서, 화자 스스로 꾸준히 반복해 온 '관습'과도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물'의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것이 주변의 '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쳐줘도 '소금물'일 뿐이죠.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를테면 '차를 마시는 나'와 같은 '사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이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

이와 같은 '사실과 관습'은 차에서 느껴지는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 뿐이니까요. 화자가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그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관습'밖에는 없고, '물'을 비롯한 '모든 것'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보기>를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문을 독해하고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현대시 세트였습니다. 나아가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 정확하게 끌고 와서 디테일하게 독해하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최근 현대시 세트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합시다.